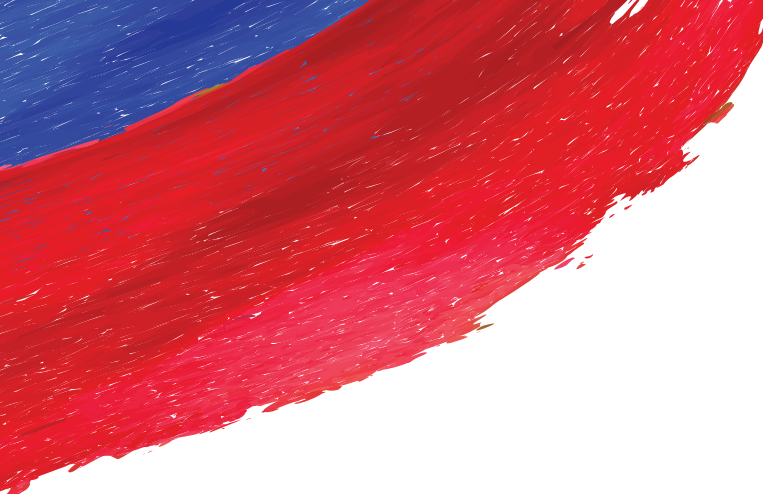




3 · 1운동 100년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3·1운동 100주년 사업의

취지와 초대의 말씀



기미년 3·1운동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이 되는 독립운동입니다.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마침내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3·1정신은 민족자주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인류 공영, 나아가 평화의 신세계 건설을 전망하는 신문명 개척 정신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사회의 정신문화를 일신하면서 민족통일을 성취하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 번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계기로 삼고자 100년 전 그날처럼 종교인들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일꾼들이 다시 한 번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일제 강점기라는 엄혹한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세계만방에 고하였습니다. 3·1운동은 그 이전까지의 봉건적인 잔재의식을 청산하고, 한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수천 년 간 이어온 봉건 왕정을 벗어나 근대 민주 공화정으로 국가의 정체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또 하나의 의의는 우리 민족이 계층과 종교, 사상을 불문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천도교를 비롯한 각 종단은 물론이고 학생들, 시민사회 단체 등은 각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에 공감하고 차이를 넘어 하나의 대열 속으로 집결하였습니다. 그러한 운동 전통은 그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이러한 3·1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오늘날 어떻게 계승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이 남겨준 화합과 상생의 정신과 역사적 경험은 우리 민족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활로를 찾아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슴속 깊이 심어 주었고, 가장 최근에는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피워 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앞둔 우리에게서 국가, 민족,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100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국내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전체 종교인들이 선도하는 범민족적 운동으로 승화하는데 더 깊은 영성적 자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다짐이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함께하셔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박남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소개 (요지)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8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2015-2019 연속사업)
- 주 최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각 종교계 및 시민사회 연합)
- 사업기간 : 2015.3.1. ~ 2019.12.31. [총 5개년 사업]
- 추진현황 : 2017년 현재 3차연도 사업 진행 [국비 지원 사업]

■ 기대효과

- 범 종교, 범시민단체 연합으로 3·1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신 선양한다.
- 전국의 관련 지자체, 단체의 협의로 범사회적, 범민족적으로 추진한다.
- 대한민국 건국 역사의 공통 기억을 확산하여 발전의 에너지로 삼는다.
- 생명평화, 공존공영, 신문명 건설의 3·1정신을 ‘문화한류’로 계승한다.
- 새로운 세계와 인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의 동력을 마련한다.

■ 주요사업 (목표)

- ◇ 남북공동사업 :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함께하여 통일의 동력 마련
 - 3·1운동 문화유산의 정리와 간행을 통한 3·1정신 정리, 보존, 확산
 - 3·1운동 100주년을 통해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과 미래 비전
- ◇ 기념공공사업 : 기념관, 기념물, 탑골공원역사공원화
 - 3·1운동 발원지인 탑골공원, 삼일대로 등 역사 자원 복원과 이용
 - 100주년 기념관과 기념물(조형물)을 기반으로 3·1올레길, 역사체험
- ◇ 문화교육사업 : 미래세대를 위한 3·1운동 교재(워크북)과 교육문화
 -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이 공감/선망하는 축제 한마당
 - 대한민국 역사와 국가에 대한 긍지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 교육
- ◇ 전국화미래화 : 지역별 연계, 참여의 전국화 사업(축제), 청년학생 참여 사업
 -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국가와 민족의 비전 만들고 공유 및 확산
 - 3·1운동 행사와 축제를 지역공동체 및 문화 활성화, 관광자원화
- ◇ 연구조사사업 :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인물사적, 종교적 연구 조사
 - 국내 및 해외의 3·1운동 사적, 인물, 자료 조사 — 공동자료집 발간
 - 학술대회와 강좌, 시민강좌와 역사탐방, 해외자료/사적 조사와 탐방
- ◇ 청소년 문화축전과 새 시대 비전 선포
 - 3·1정신을 매개로, 남북-해외의 한민족 “세계 청소년”이 동참하는 사업
 - (가칭)서울선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화합의 에너지 마련

주요활동 연혁

- 2010.03. 3·1운동 100주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사회통합과 민족통일 나아가 세계평화의 새 역사 창조의 계기로 삼자는 움직임 가시화(종교계 교류)
- 2014.03.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주요 임원=공동대표 명단 별첨)
- 2014.03. 일반 시민 및 각 단체 대표자들로 '민족대표'를 구성 전국 차원 확장
- 2014.12.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3·1운동사 연구조사사업 확정
- 2015.10.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서) 입안 — 서울대인문학연구원
- 2015.11. 3·1운동 해외 조사사업 — 중국 흑룡강성 일대 독립운동 사적, 3·13만 세운동기념사업회
- 2016.01. 제2차 중국 흑룡강성 지역 답사 및 자료 수집
- 2016.03. 3·1절 97주년 기념식 및 뮤지컬 “대한독립만세” 공연
- 2016.05. 3·1운동 국내 조사사업 (연중)
- 2016.06. 3·1운동 100주년을 위한 전문가포럼
- 2016.07. 3·1운동 해외성지순례 “3·1운동 100년,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임시 정부의 길]
- 2016.08. 3·1운동 해외 네트워크 [러시아 신한촌,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09.
- 2016.09. 3·1운동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관지 <3·1정신> 창간(계간)
- 2016.11. 제2차 민족대표 보고회, 사업보고 및 민족대표 위촉식
- 2016.11.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세계로 퍼진 3·1운동 [일본, 중국, 러시아]
- 2017.01. 해외 네트워크 [미국 서부지역(LA), 일본 동경, 중국 한인회]
~02.
- 2017.03. 3·1운동 100주년을 위한 문화기획자 — 대한독립만세 포럼/문화독립만세 선언 채택
- 2017.03. 제98주년 3·1절 기념 문화공연 및 시민참여행사 [서울 및 전국] 시행
- 2017.06. 3·1운동 100주년을 위한 전국화 사업, 팟캐스트, 해외사적지 순례, 청소년공모사업, 세계네트워크 사업 시행
~12.

함께하는 사람들

3·1운동 100주년 민족대표 이야기

“3·1운동 100주년 민족대표”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앞장서서 이끌고 참여하고 성원하여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 비전을 만드는 대표일꾼이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각 종단의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면서 모두 죽음을 각오하며 참여하였다. 100주년 민족대표는 오늘의 사회상황에 걸맞게 여성과 청년, 학생, 각 직능과 이념적 다양성 등을 아울러 구성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33인을 넘어 330명, 3,300명, 33,000명이라는 확장이 두드러진 차이라 할 수 있다.

민족대표의 요건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민족대표>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공감하며, 민족대표가 되기로 약정한 분으로서

- (1)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각 직책 후보가 되고, 정기적으로 사업보고를 받습니다.
- (2) 사업추진 방향을 제안하거나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3) 각종 기념사업 추진을 각 분야별로 대표하며, 홍보하는 활동을 담당합니다.
- (4) 3·1정신을 구현하고 민족정기회복, 통일, 평화 세계 건설하는 주역이 됩니다.

민족대표 참여 안내

기존의 민족대표 또는 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한 지역 또는 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경력사항(3개 내외)를 포함하여 민족대표 “참여 신청”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공동대표회의”의 추인을 거쳐 위촉합니다. [문의 : 사무처 02-723-7731]

공동대표 33인 안내

박남수 (상임대표, 천도교 전 교령)	김광준(신부)
김대선(원불교 / 교무)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 원로목사)
김인수(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대표)	김재완(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김홍진(천주교서울대교구 상설고해사목)	리광평(웅정3·13기념사업회 회장, 중국)
무원(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주지스님)	박경조(대한성공회 / 주교)
박인주(사단법인 생명문화)	박종화(경동교회 / 원로목사)
법륜(평화재단 이사장 / 스님)	법현(한국불교 태고종 / 스님)
염상철(천도교 종의원의장)	오공태(재일 민단 단장 (일본))
윤경로(한성대학교 전 총장, 소장)	윤석산(천도교 교서편찬위원)
윤여두(동양물산기계 회장)	이갑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숙순(재중 한인회 회장, 중국)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일영(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일감(스님,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임도재(중동아프리카연합회 회장)	정문(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 스님)
정유현(민족대표33인유족회 고문)	최완규(신한대학교 교수)
태범석(前한경대 총장)	하윤수(한국교원단체협의회 회장)

외 민족대표 500여 명 (2017년 7월 현재) *3개월 단위로 추가 위촉됨

주요사업 (2015년~2017년)

□ 종합계획서(2015년-2019년 사업) 및 사업결과보고서(2015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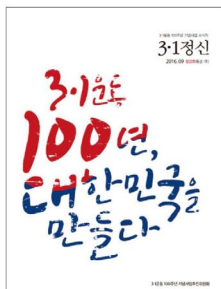
□ 3·1 운동 100주년 '2015년 기념사업 보고회'(2월 26일, 하림각)



□ 역사뮤지컬 <대한독립만세> 공연(3월 1일, 천도교중앙대교당)



□ 홍보사업[홈페이지, 소식지, 블로그, 페이스북, 카페]



□ 3·1운동 해외 성지 순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길] 및 해외 네트워크(중국/러시아)



□ 주요회의의[공동대표회의/ 집행위원회/ 기획위원회/ 전문가 포럼]



□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정책 제안)



□ 공동대표단 국립서울현충원 공식 참배

